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보건진료원의 기능은 치료위주에서 질병예방의 건강관리가 74.6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14.66%, 저렴한 건강관리가 10.67%이었다.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건강관리의 지식과 기술이 41.4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지역주민과의 rapport 형성 20.73%, 결혼, 가정 생활의 장애 19.51%, 낮은 생활의 적응 13.42%이었다. 가장 자신있다고 생각되는 역할은 건강교육이 50.6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지역주민과의 rapport 형성 25.33%, 건강관리 24.00%이었다.

4. 보건진료원 제도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 보건진료원 취업조건 향상을 위해 바라는 조치는 합리적, 현실적 임금제공이 31.4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협회의 집단적 취업교섭 27.91%, 보건진료원 복지와 혜택강구 26.74%, 배우자의 근무지 배려 13.37%이었다. 보건진료원 질적향상을 위해 바라는 정책은 재교육이 36.1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합리적, 현실적 임금제공 26.11%, 스스로 건강한 생활 표본 23.89%, 면허시험 제도 11.11%, 암행어사 감사 2.78%이었다. 보건진료원 희망 재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바람직하다가 38.35%이었고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32.88%, 비현실적이다 66.65%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5. 보건진료원 제도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진료원 교육이 재학생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진료원의 복지와 혜택이 강구되어야겠다.

보건진료원의 환자의뢰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박 승 자

1982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전국 오·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240명을 대상으로 진료소내 활동과 환자의뢰활동 및 기술자문체계의 실태와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2년 7·8·9년 3개월간 진료소당 평균 내소자수는 654명이었으며 이중 진료를 받기 위해 내소한 경우가 515명으로 전체 내소자중 78.7%를 차지하였다. 주민들의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율은 8.23%이었다. 보건소와 가장 가까운 2·3차 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일수록 보건진료소 월간이용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82년 7·8·9년 3개월간의 내소자 중 의뢰한 환자수는 진료소당 평균 14명이었으

며 진료소 평균 의뢰율은 2.1% 이었다. 의뢰원인별로는 치료나 진단이 어려워져 이송한 환자수가 64.3% 를 차지하였다. 3개월간 이송한 환자중 입원환자수는 진료소당 평균 1.6% 명이었으며 평균 입원비율은 11.4% 이었다.

3. 가장 자주 환자를 의뢰하는 기관은 개인병의원으로 47.5% (113명)이었으며 57.5% (138명)의 응답자가 전문의에게 환자의뢰를 하고 있었다. 의뢰기관 선택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 의사가 성심껏 환자를 돌보므로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72.1% (173명)가 지정 의뢰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이유로는 문의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가 19.1% (33명)로 나타났다.

4. 환자 이송전 사전 연락을 한 경우, 구급차를 제공받은 경우는 29.5% (43명)에 불과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77.5% (184명)가 주로 택시를 이용하였다.

5. 의뢰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68.8% (165명),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1.2% (75명)이었다. 의뢰서를 보냈을 때 회신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가 24.2% (40명)로 나타났으며 의뢰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의뢰기관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52.0% (39명)이었다. 의뢰환자의 퇴원은 88.8% (175명)가 환자가족이나 동네 주민으로부터 알았으며 의뢰, 입원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경우는 5.1% (10명)에 불과하였다. 의뢰환자퇴원시 치료과정기록지 및 추후관리 설명서를 한번도 받은 적 없다가 각각 78.2% (154명), 69.0% (136명)로 나타났다.

6. 월간 자문을 구하는 횟수는 1~2회가 50.5% (105명)로 가장 많았고 주로 자문을 구하는 대상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의사가 58.3% (140명)로 가장 많았다.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49.8% (115명)만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조산원 면허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보건소에서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5.0% (108명), 군지역관내 의사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는 경우는 21.3% (51명)에 불과하였다.

7. 근무 예정기간은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 가능한 한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68.3% (164명)로, 의무기간 동안 만 근무하겠다는 27.5% (66명)로 나타나서 9개월 동안의 근무후에 탈락희망자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응급환자 이송시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수단 부족이라고 54.6% (118명)가 응답하였으며 2·3차 의료기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83.9% 가 환자처치에 관련된 회신서, 치료과정기록지, 추후관리설명서를 받기 원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소득수준이 낮은 오벽지 주민의 건강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환자 이송 체계의 확립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입원치료후 지역사회에서의 추후관리를 위해 일차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에게로 환자가 feed back 되는 체계가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보건진료원의 환자의뢰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의 환자의뢰내용을 분석하여 그 적합성을 파악하는 세부적인 연구가 시도되었으면 한다.